

대구 경북지역에서 인슐린저항성증후군 패턴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이희자*, 윤진숙.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atterns of Insulin Resistance Syndrom in Subjects Living in Taegu and Kyungpook

Heeja Lee*, Jin-sook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인슐린저항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증세들 즉 내당능이상,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한 개인에서 군집으로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들 질환을 따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나 또 한편으로는 군집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의 발생이 우려되는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비만정도, 혈압, 혈당, 및 혈청 지질상태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조사하며,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진 자료분석을 통한 후향적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질환 가능성을 분류하였다. 고지혈증은 총콜레스테롤 200mg/dl,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혈압 90mmHg, 고혈당은 공복시 혈당 120mg/dl,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유병률 및 유형별 패턴의 분포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건강검진자(9234명:남자 63.5%, 여자36.5%)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47.67±11.24세, 여자는 39.84±14.29세였다. 남녀별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공복시 혈당 및 총콜레스테롤의 평균치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총대상자의 24.4%(2256명)가 비만, 고혈압 13.3%, 공복시 고혈당 3.7%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2.4%이었다.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4644명으로 50.3%이었고, 남자는 54.4% 여자는 43.1%이었다. 2가지 증상만 보유한 대상자는 15.1%이었고, 남자 16.7% 여자 12.3%이었다. 3가지 증상만을 보유한 대상자는 3.9%이었고, 남자에서는 3.9% 여자에서는 3.8%이었다. 고혈압, 비만, 고혈당과 고지혈 증상 4가지 모두를 보유한 대상자는 23명으로 0.2%이었고, 남자에서는 0.2% 여자에서는 0.3%이었다. 증상 가지수를 정상,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로 구분하여 증상 관련 지표들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증상보유수가 많을수록 관련 지표들 즉 연령, 체중, 혈압,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는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유한 대상자의 유병률은 10대가 20.8%, 20대가 26.3%, 30대가 43.5%, 40대가 55.9%, 50대가 73.7%, 60대가 77.0%, 70대가 82.1%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인슐린저항성증후군을 고혈압, 내당능장애, 지질대사이상, 비만의 증상 중 2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을 때 이의 유병률은 10대가 1.5%, 20대가 5.4%, 30대가 13.4%, 40대가 19.3%, 50대가 35.7%, 60대가 43.9%, 70대가 52.9%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개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인슐린저항성증후군 패턴 중에서 50대까지는 비만과 고지혈 증상 2가지를 보유한 대상자의 패턴이 가장 많았으나, 60대와 70대는 고혈압과 고지혈 증상 2가지를 보유한 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인슐린저항성증후군 패턴 중에서 고혈압, 비만과 고지혈 증상 3가지를 보유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저자들의 연구결과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에서 인슐린저항성증후군은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이고, 유형별 패턴 양상 역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특히 복합 질환을 가진 자들을 위한 영양관리는 군집으로 나타나는 증후들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적용하여야 효과적인 영양개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